석유화학 정상화를 위한 제언(II)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가 수출을 둘러싸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이 LDPE · HDPE · PP · PS · ABS등 5대 범용 합성수지를 다량 구매, 수출이 아연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 상태로 나간다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정상화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머지않아 크래커를 더 건설해야 하고, 합성수지를 비롯한 유도품 신 · 증설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엉뚱한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
이유인 즉, 중국이 개방물결을 타게 되면 수입을 막기 어렵고, 또 중국의 국민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이 선진국의 몇십분의 일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소비증가는 눈에 본 듯 훤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 아무리 기를 써봐도 석유화학제품 자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수요의 일부를 계속 공급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수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며, 북한이 개방화되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 또한 상당량이 될 것이고, 대부분을 우리 업체들이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또 합성수지 신 · 증설을 허가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논리 개발이 궁하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수요를 근거로 할 수 밖에,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삼성 · 현대가 신규 참여를 논할 때, 기존 석유화학업체들은 중국 수요를 실수요로 예상, 투자하는 데 극력 반대했으며, 그 후에도 「허수」놀음이라면서 그들을 비웃었음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물론, 중국과 북한이 개방을 향해 줄달음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엄청난 수요가 생기고 우리의 수출도 활성화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만,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르긴해도 2000년대 초까지는 이 체제를 유지할 것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달러가 없는데도 외채를 무작정 끌어들여 합성수지를 수입하고, 그 가공제품을 소비할 중국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유의할 점은 중국의 합성수지 수요가 그들의 내수용만은 아니며, 그들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70년대식 한국의 수출산업과 비슷한—수출 가공용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을 싼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 그들의 가공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그 가공제품이 동남아 등지에 수출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플래스틱 가공제품 수출의 상당부분이 이탈할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공제품이 자유무역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안방에 들어앉을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인건비가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는 점에서 보면—중국의 장관급료(월급)가 6만원 수준이라고 한다—고임금 및 기술직의 이직이 심각한 우리의 플래스틱산업이 어두컴컴한 겨울하늘을 쳐다보아야 하고, 나아가 국내 합성수지산업도 사양화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수요가 많고 중국용 수출가격도 국내가격 600달러선보다 높은 610~62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다는—사실 국내가격 600달러는 최하가격이다—일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하고 싶다.
이는 국내가격을 올리기 위해 억지로 떠벌리는 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힘겨루기 양상도 3~4개월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3월의 동남아 합성수지 거래가격은 655~820달러로, 국내업체들의 수출가격 600달러선과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70년대 말 국내 앨범업체들이 임금이 싼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그들의 물량공세에 무너진 사실은

시사해주는 바 크다.
플래스틱산업에서도 필름 등 어느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문은 괜찮겠지만, 사출을 비롯 얀·백 등 고기능 또는 고기술과 거리가 먼 가공제품은, 2~3년 안에 중국의 저임금이 우리를 추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싶다.
공장가동률을 높이고 재고를 줄여야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제살 깎아먹는」자충수는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동률을 조정,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수출만이 최선은 아니다!

<화학저널 1992/4/15>